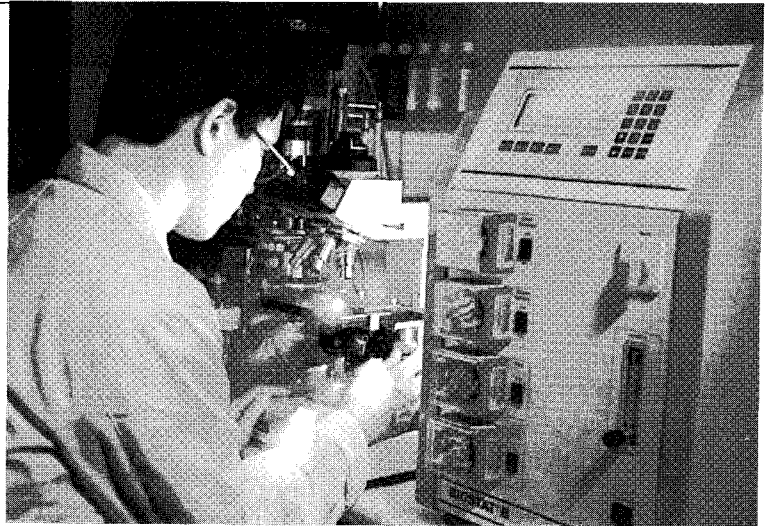


SAMSUNG

삼성엔지니어링



<연료용일괄 발효실험/연료용일괄은 재생가능한 바이오에너지로서 선진각국에서 시험 운영중에 있다>

## 기술선진화 주력, 세계무대 1인자로 도약위해

「우리의 기술로 우리나라 중화학플랜트를 건설한다」라는 기치아래 '70년 1월 설립하여 현재까지 힘찬 진일보행진을 거듭해오고 있는 삼성엔지니어링(대표 : 안덕기)은 창업이후 24년동안 국내외의 크고 작은 850여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내실을 다져왔으며, 아울러 기술선진화를 위해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회사운영, 신규산업에의 적극적인 도전으로 다가오는 21세기에 국내시장에서의 1인자만을 목표로 하는것이 아닌 세계무대 1인자로의 도약을 겨냥해 끊임없이 건설한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 풍부한 경험으로 최적의 플랜트 창조

삼성엔지니어링은 그동안 정유 및 석유화학, 일반화학, 식품·섬유·전자등 산업설비, 에너지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등의 사업분야에서 타당성조사, 설계, 구매, 시공, 시공감리 및 시운전등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축적해왔을 뿐만 아니라 공장자동화 및 물류시스템, 클린룸, 대체에너지 개발분야로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국내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해외사업의 비중을 크게 확대하여 해외시장 개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데, 예전의 경우 주로 설계위주의 용역수출이었으나, 최근에는 이를 탈피하여 설계에서 기자재조달, 시공, 감리까지 수행하는 턴키베이스 체제로 전환해 적극적인 산업설비 수출에 나서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의 최근 주요실적으로는 국내의 경우 삼성중합화학의 에틸렌, EO/EG, C4플랜트, 유틸리티와 진로 청원공장, 한주 소금제조공장, 삼성석유화학 TA/PTA 플랜트 등이며, 해외의 경우 연생산 30만톤규모의 중국 길림성 에틸렌 플랜트, 연생산 5만 7천톤규모의 이란 TPC 합성고무 플랜트, 연평균 15만톤규모의 태국 고밀도 폴리에틸렌 플랜트의 유틸리티 프로젝트등을 수주받는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93년에는 중국 EG 플랜트를 턴키 수주하였으며, 태국 GSP NO.3, MTBE 제조 플랜트등을 성공하여 국내외적으로 지명도를 더욱 높였다.

###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환경사업

또한 삼성엔지니어링은 최근 가장 크게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환경보존분야에 일찍이 참여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다.

국내기업체로는 처음으로 환경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환경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역시 국내기업체로는 최초로 환경보존의 중대성을 삼성그룹 차원에서 깊이 인식하여 삼성그룹내 전사업장에 대한 환경현황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21세기에는 선진국과 대등한 환경수준으로 끌어 올리기위해 전담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의 환경사업의 주요내용은 폐수처리시설, 수처리시설, 순수·초순수 제조설비, 대기오염처리시설,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유해가스, 악취제거시설, 폐기물 처리기술등이며, 지난 18년 동안 삼성중합화학, 삼성석유화학, 전주제지등 삼성계열사의 환경시설을 중심으로 약300여건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대내외적으로 공신력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대가로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86년 환경오염방지시설 우수업체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다.

이처럼 국내 굴지의 환경설비업체로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도 결코 만만치 않다. 이들이 현재 갖고있는 주요 기술현황을 보면, 종래의 혐기성 소화처리기술을 발전시켜 고농도 유기폐수를 경제적으로 처리하여 만드는 ABC 폐수처리방식, 24시간 연속폐수처리가 가능한 상하류식 연속 여과설비, 초심층 폭기 폐수처리설비, 상하류의 재생시스템등이 있으며, 이밖에 역삼투압 시스템, 분진에 의한 대기오염을 처리하는 전기집진(EP)기술, 유해가스, 악취제거 장치등에 관한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장차 세계로의 도약을 위해 새로운 기술개발에 매진, 도전의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91년 환경설비의 과감한 투자와 '92년 "그룹환경관리지침"의 제정을 통하여 완벽한 오염방지시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폐수, 대기, 소음, 진동, 산업폐기물분야의 지속적인 개발 투자로 인해 우수한 환경업체로 주목받고 있는 삼성엔지니어링은 환경사업부의 고급기술인력을 '95년까지 총320명으로 늘릴 계획이며, 선진외국기술을 더욱 확보하고 해외 대규모 공사참여, 해외지점개설(12개소), 해외공동투자등을 통해 세계적인 환경회사로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야심찬 계획을 진행중이기도 하다.

### 고유의 기술정신으로 독창적인 기술확보

삼성엔지니어링은 '92년 12월, 경기도 용인군의 기술연구소를 독립건물로 이전하고 분리운영되고 있던 환경 기술연구소와 엔지니어링 기술연구소를 합병하여

플랜트 기본설계 기술에서 오염방지 기술까지를 일원화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기술연구소는 이동수 소장이하 박사 7명, 기술사 4명, 석사 20명, 학사 20명등이 있으며, 기획관리 및 그룹환경·에너지 정밀진단 T/F, 환경기술개발, 화학공정개발,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파트가 함께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수한 인적자원과 최첨단 연구시스템을 갖추고 효율적인 처리공정개발, 고속화된 최적의 시설개발 및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타이밍을 놓치지않는 신기술개발 능력은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기술연구소를 모체로하는 공정진단기술은 고도의 프로세스분석 및 점검기법을 활용하여 플랜트의 오동작, 에너지 과소비, 오염원 발생등을 해결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에 대한 개선을 꾀하는 기술로서 총체적인 노하우와 집적된 시뮬레이션 기술이 결합되어야 한다.

기술연구소는 플랜트의 에너지이용을 효율화하고 오염원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이러한 기술을 '92년말부터 실제 플랜트에 적용해오으로써 그 실적을 꾸준히 쌓아 올리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 기술연구소는 기술개발을 가속화하여 향후 전자빔가속기를 이용한 폐수 및 대기처리기술 및 토양오염방지기술, 도시하수처리기술, 핵폐기물 처리기술등 최첨단 환경오염 방지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95년에는 환경기술개발파트의 연구투자비를 30억원이상 늘려 환경기술을 국내에 보급함은 물론 해외수출에도 주력한다는 장기적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러한 기술개발을 통해 인류사회에 기여하며 앞으로 공정 및 환경기술의 독자적 개발과 보급을 위해 보다 많은 투자와 연구를 계속하고있는 삼성엔지니어링의 기술정신 「정복하는 기술이 아닌

자연과 하나되는 기술」 바로 이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기술정신이다.

### 21세기 미래산업의 개척자

「삼성엔지니어링은 항상 미래를 대비한다」는 목표로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력을 향상시키고, 선진 및 현지 엔지니어링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 공동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영업지역을 현재 동남아중심에서 중동 및 중국, 구소련과 동구권시장으로 확대하는등 새로움을 향한 도전정신은 이들을 발전시키는 힘의 원천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플랜트 수행실적이 많은 식품, 합섬, 석유화학 플랜트분야를 전략품목화하여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92년 2월에는 한국기업 최초로 싱가포르 국제환경 전시회에 참가하는등 세계진출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앞으로도 명실공히 국제수준의 기술회사로 성장하기 위해 기술력향상에 최대한 투자를 해서 장기적성장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다는 삼성엔지니어링의 야심찬 계획은 '95년까지 기본설계능력을 완전히 자립하고, 2000년까지 석유화학 및 환경관리 Process 라이선스를 개발도록 하며, 수행경험이 많은 Process를 대상으로 개발도상국 시장에 적합한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자체기술 Package화 하고, 컴퓨터 응용기술에 바탕을 둔 설계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까지 자신만만하게 짜여져 있다.

앞선 기술침병으로서의 강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탄탄히 묶여있는 삼성엔지니어링은 「풍부한 기술과 노하우를 토대로 한 21세기 미래 산업의 개척자」라는 슬로건 아래 세계 각지에 삼성엔지니어링의 땀으로 플랜트를 건설하겠다는 의지 하나로 오늘도 끊임없는 정진을 계속하고 있다.